

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이재호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차 례 ● ● ●

1. 태국 정치 현황 분석
2. 태국 경제 현황 분석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4년 5월 7일 잉락 총리 사임 이후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정부가 추진한 사면법에 반발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정권퇴진 시위로 2013년 10월 시작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
 -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권력남용 혐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잉락 총리가 사임함.
 - 잉락 총리 사임 이후 후임총리 인선 및 신정부 구성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2014년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 태국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4/4분기부터 경제침체 우려가 증가되어 왔으며 소비·투자·교역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면서 2014년 1/4분기에 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 기관들이 태국의 2014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경기위축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공공투자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회복 지연과 수출상품 가격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외채·외환보유고 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시일에 외환부족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군부성향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해 정정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태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한국기업들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정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태국 정치 현황 분석

■ 태국은 잉락 정부가 추진한 사면법에 반대하는 반정부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의 정권퇴진 시위로 인해 극심한 정치 혼란이 지속되어옴.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2013년 10월 태국 여권의 사면법 추진에 반대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 PDRC를 중심으로 시작됨.
- o 사면법은 과거 7년간 여야 정치사범 전원 사면을 통한 정치청산을 주요 골자로 하며, 탁신 전 총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시작됨.
- 이후 PDRC 시위대가 정부청사 점거, 방콕 봉쇄 등의 형태로 전면적인 정권퇴진 시위를 확대해왔으며, 시위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됨.

■ PDRC의 정권퇴진 요구에 대해 잉락 전 총리는 정권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국가질서 유지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조기총선을 통한 재신임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반정부 시위대의 정부청사 점거 및 방콕 주요도로 점거시위가 격화되자 태국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질서 유지를 시도하였으나 반정부 시위는 계속됨.
- 또한 잉락 전 총리는 2014년 2월 2일 조기총선을 실시해 재신임을 시도했으나, 이에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PDRC의 투표 반대시위로 인해 약 10%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함.
- 태국정부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10%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이 전국 동시선거 원칙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결국 2014년 3월 21일 태국 헌법재판소에서 조기총선 무효 판결을 받음.

■ 태국 헌법재판소의 조기총선 무효판결 이후 비리여부 조사 형태로 사법기관의 총리 사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과거 인사와 관련해 권력남용 판결을 내려 잉락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함.

- 태국정부의 쌀 구매대금 지급 지연에 항의하는 농민층이 2014년 초부터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면서 쌀구매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잉락 총리의 비리 여부에 대한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됨.
- NACC의 잉락 총리 비리 혐의 수사와 더불어 잉락 총리의 2011년 국가안보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위원장 경질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도 주목을 받아옴.
- 2014년 5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2011년 NSC 위원장 경질 인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잉락 전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함.

- 친정부 단체인 반독재민주연합(UDD: 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속칭 Red Shirts)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잉락 총리를 겨냥한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항의 시위를 시작함.

■ 잉락 전 총리의 사임 이후에도 신정부 구성 방향에 대한 합의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자 국민 안전을 이유로 2014년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쿠데타가 발생함.

- 잉락 전 총리 사임 이후 과도정부 구성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정정불안이 오히려 심화됨.
- 특히 잉락 총리 사임 직후 PDRC는 중립적인 과도 총리 및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총리청사, 국회, 주요 방송국 등을 점거하며 반정부 시위를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발물과 총기 사고로 PRDC 진영에서 다수의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함.
- 이에 태국 군부가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군부 쿠데타를 공식 발표했으며, 이번 쿠데타는 1932년 입헌군주제 실시 이후 19번째 군부 쿠데타임.
- UN, 미국,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군부성향의 과도정부 수립에 대한 논란과 대규모 반정부·반군부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태국의 주요 정치 사건 및 이슈(2013년 10월~2014년 5월 현재)

- 2013. 10 사면법 입안으로 반정부 시위 심화, 반정부 시위대의 총리 및 내각 퇴진 요구
- 2013. 11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시위 확대, 「국가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발령, 잉락 총리 불신임안 부결
- 2013. 12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충돌로 유혈사태 발생, 잉락 총리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발표
- 2014. 01 반정부 시위대 방콕 봉쇄시위 전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2014. 02 조기총선 실시, 야당 선거 보이콧(약 10% 선거구 선거실시 실패)
- 2014. 03 헌법재판소 조기총선 무효판결
- 2014. 04 반부패위원회(NACC) 쌀수매 정책비리 수사, 국가안보위(NSC) 위원장 경질 사건 논란 확산
- 2014. 05 헌법재판소 잉락 총리 국가안보위원장 해임 관련 권력남용 혐의로 총리직 박탈, 반정부 시위 확대, 군부 쿠데타 발생

2. 태국 경제 현황 분석

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 최근 수년간 태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등락해왔으며, 2014년 1/4분기에는 소비·투자·교역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함.

- 태국은 2013년 중반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2013년 4/4분기에 성장률이 0.5%까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6%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태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최근 정정불안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부진을 최근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14년 경제성장 전망률도 2.0%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임.
- o 주요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내역: NESDB 3~4% → 1.5~2.5%, DBS 3.1% → 2.0%, HSBC 2.7% → 2.0%, TMB Bank 2.9% → 2.0%, Siam Commercial Bank 2.4% → 1.6%¹⁾

표 1. 최근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2~14년 1/4분기)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생산	농업	%(YoY)	3.8	1.4	0.8	2.5	-0.3	2.1	0.8
	비농업	%(YoY)	6.7	3.0	5.8	3.0	3.0	0.5	-0.7
지출	민간소비	%(YoY)	6.7	0.3	4.4	2.5	-1.2	-4.1	-3.0
	정부지출	%(YoY)	7.5	4.9	2.9	7.6	7.3	0.8	2.9
	총고정자본형성	%(YoY)	13.2	-2.0	5.8	4.7	-6.3	-11.4	-9.8
	민간	%(YoY)	14.4	-2.8	2.9	2.0	-3.1	-13.2	-7.3
	공공	%(YoY)	8.9	1.3	18.8	15.4	-16.2	-4.7	-19.3
	수출(상품, 서비스)	%(YoY)	3.1	4.2	8.3	2.9	3.8	2.0	-0.4
	수입(상품, 서비스)	%(YoY)	6.2	2.3	8.1	4.5	0.8	-3.5	-8.5
	GDP	%(YoY)	6.5	2.9	5.4	2.9	2.7	0.6	-0.6
	%(QoQ)	-	-	-1.4	0.2	1.5	0.1	-2.1	

주: YoY 전년동기대비, QoQ 전분기대비.
자료: NESDB(www.nesdb.or.th).

나. 소비 및 투자 둔화

■ 태국의 민간소비 부문은 2013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4년 1/4분기에도 소비 둔화가 지속됨.

1) Erich(2014), "Future bleak after Q1 GDP contraction," *The Nation*. (May 20)

- 2014년 1/4분기 태국의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내구재 소비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
- 내구재 소비 감소는 2012년 태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생애 첫 자동차 구입 세금혜택이 종료되면서 2014년 1/4분기 차량 구입이 전년동기대비 54.8% 감소한 것에 기인함.
- 한편 정정불안으로 인한 가계수입 및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도 하락을 지속해 15년래 최저치인 68을 기록함.

■ 투자부문도 2013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4분기는 -9.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은 주로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기계 및 설비 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함.
- 한편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하며 민간부문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4년 1/4분기 태국의 기업심리지수(Business Sentiment Index)는 3분기 연속으로 50 아래에 머물러 있음.
※ 태국의 기업심리지수는 투자, 고용, 생산 등 기업활동 여건을 지표화한 것으로, 50을 기준으로 50: 안정적, 50 이하: 기업심리 악화, 50 이상: 기업심리 개선으로 해석함.

표 2. 태국의 주요 경기지수 추이(2013년 7~9월)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기동행지수(CEI)	129.6	129.9	128.8	128.0	128.8	127.4	129.2	127.4	127.3
증가율(YoY)	-1.3	-0.2	-2.7	-2.3	-2.7	-2.7	-2.5	-3.2	-3.9
제조업생산지수(MPI)	190.9	190.8	187.1	187.3	186.3	187.0	185.8	187.0	182.5
증가율(YoY)	-4.7	0.2	-0.2	-2.2	-8.0	-4.4	-6.6	-5.0	-10.2
민간소비지수(PCI)	146.4	147.9	145.8	147.8	146.2	146.7	147.3	145.3	145.8
증가율(YoY)	-0.8	0.7	-6.2	0.0	-2.4	-0.3	-1.5	-2.6	-1.4
민간투자지수(PII)	238.4	239.8	238.7	236.0	234.5	233.0	233.0	229.4	229.7
증가율(YoY)	-4.3	-3.1	-3.5	-4.9	-7.8	-8.0	-8.1	-7.4	-6.4
소비자신뢰지수(CCI)	80.3	79.3	77.9	76.6	75.0	73.4	71.5	69.9	68.8
기업심리지수(BSI)	48.3	47.5	47.5	47.4	46.9	45.0	45.4	46.5	49.4

주: YoY 전년동월대비.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다. 수출입 감소 및 자본유출 지속

■ 2013년 하반기부터 태국의 수출,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입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이 특징임.

- 태국의 상품 수출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감소해왔으며 2014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0.8% 감소함.
-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농수산물 부문은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 제조업 부문은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 부진이 지목됨.
-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8%로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하락, 수출 부진으로 인한 원자재·중간재 수입 감소,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 감소 등이 지목됨.
- 무역수지는 3분기 연속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 감소 폭이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표 3. 태국의 최근 수출입 추이(2012~14년 1/4분기)

	단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수출(FOB)	억 달러	2,258.8	2,254.0	559.9	555.5	579.6	558.8	555.7
증가율	%(YoY)	3.1	-0.2	4.1	-1.9	-1.8	-1.0	-0.8
수입(FOB)	억 달러	2,198.6	2,190.4	575.7	565.1	529.3	520.4	490.5
증가율	%(YoY)	8.8	-0.4	8.5	1.0	-2.9	-7.6	-14.8
무역수지	억 달러	60.2	63.5	-15.7	-9.6	50.3	38.5	65.2
경상수지	억 달러	-14.7	-27.9	5.3	-67.1	4.3	29.6	82.3
	%/GDP	-0.4	-0.6	1.2	-6.7	0.5	3.1	8.8

주: YoY 전년동기대비.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 자본계정 부문에서는 2013년 3/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자본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2014년 1/4분기 자본유출 규모는 약 63억 달러에 달함.

- 3분기 연속 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 1/4분기의 경우 정부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본유출이 발생함.
- 최근 태국 자본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은행부문의 해외 단기채무 청산, 포트폴리오 투자부문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내국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순매수 등을 들 수 있음.

표 4. 태국의 자본흐름 추이(2013~14년 1/4분기)

(단위: 십억 달러)

	2013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자본계정	0.4	8.1	-1.3	-6.4	-6.3
통화당국	4.4	4.0	0.2	0.3	-1.0
정부	-4.6	-0.8	-0.3	-3.4	0.2
은행	1.0	3.6	-4.8	0.2	-3.3
기타	1.5	1.4	3.7	-3.5	-2.1
직접투자	6.4	0.9	2.7	2.8	2.0
포트폴리오 투자	-7.3	-0.2	0.1	-7.2	-3.8

자료: NESDB(www.nesdb.or.th).

라. 외채 및 외환보유고

■ 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외채 및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의 외채 규모는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약 1,400억 달러 내외, GDP 대비 39% 수준으로 유지함.
- 2013년 연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672억 달러로 외채대비 119%, 단기외채 대비 2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환부족 사태가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2014년 4월에는 1,689억 달러로 소폭 증가함.

표 5. 태국의 외채 및 외환보유고 현황(2012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단위	2012년				201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외채	억 달러	1,134.0	1,167.2	1,237.9	1,307.5	1,386.3	1,411.8	1,397.6	1,398.9
단기	억 달러	542.1	560.5	552.1	581.8	602.6	646.2	615.3	599.3
장기	억 달러	592.0	606.7	685.9	725.7	783.7	765.6	782.3	799.6
외채/GDP	%	35.5	35.6	36.9	38.0	39.5	39.4	38.5	38.2
외환보유고	억 달러	1,792.5	1,746.9	1,836.3	1,816.1	1,778.0	1,708.4	1,722.9	1,672.3
외환보유고/단기외채	%	330.7	311.7	332.6	312.2	295.1	264.4	280.0	279.1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마. FDI 및 관광산업 위축

- 2014년 1/4분기 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청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문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2014년 1/4분기 태국의 FDI 신청은 총 197건, 2,019억 바트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약 28% 가량 증가함.
 - 월별로는 2014년 1~2월까지의 FDI 신청액이 472억 바트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반면, 3월의 투자 신청액은 1,54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8% 급증함.
 - 이는 태국정부가 소형 고연비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Eco-Car 프로젝트 2기' 관련 투자 신청이 2014년 3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국가로 최근 수년간 관광객 입국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정정불안으로 관광산업 위축이 우려됨.
 - 최근 수년간 태국의 관광객 입국수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3년 관광객 입국 수가 2,600만 명을 돌파함.
 - 하지만 2013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면서 점차 관광객 입국 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3월에는 관광객 입국 수가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함.
 - 호텔 객실이용률 또한 2013년 연말에는 64%에 달했으나 2014년 3월에는 58%까지 하락함.

표 6. 태국의 관광객 입국 수 및 호텔 객실이용률 추이(2012~14년 3월)

	단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관광객 입국 수	천 명	22,353.9	26,735.6	2,149.2	2,355.7	1,995.3	2,054.6	2,378.1	2,542.4	2,319.8	2,174.4	2,104.1
증가율	%(YoY)	16.2	19.6	18.4	22.2	23.8	14.1	10.9	4.4	0.1	-8.1	-9.4
객실이용률	%	60.9	64.9	60.7	66.5	60.7	59.7	69.4	64.3	60.8	61.8	58.2

주: YoY 전년동월대비.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바. 주요 국책사업 추진 중단

- 잉락 정부가 주요 중장기 경제성장전략으로 추진해온 '2조바트 인프라 개발 사업'의 예산 차입법안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됨.

- 잉락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태국을 동남아의 인프라 허브 국가로 성장시키면서 경기부양과 중진국 함정 탈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옴.
- 하지만 201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업의 정부차입법안(Government Loan Bill)이 의회의 일상적인 예산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 169조, 17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조 바트 인프라 사업은 새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2013년 말 의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임.
- 2조 바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전면중단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에 예정된 관련 예산집행이 중단되면서 경기부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여야간에 논의해온 신정부 구성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군부성향의 과도정부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직후 수립된 친군부 과도정부 체제도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에도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민주정권으로의 이양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전례가 있음.
- 이번에도 태국 군부 쿠데타 및 군부성향 정권 수립의 정당성, 주요인사 구금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태국의 정정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다수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2.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정정불안으로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의회 부재상태로 인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한 예산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태국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정책 추진이 금지되어 있는 점도 경기부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하락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군부 쿠데타로 다수 국가에서 여행 자제령 혹은 금지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관련업계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

■ 향후 태국경제 회복은 정정불안 해소를 통한 소비 및 투자 회복,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및 공공투자 확대, 수출 확대 등이 관건임.

- 정정불안 해소를 통한 소비 및 투자 회복의 경우 정국안정과 신정부 구성이 필요하나 단시일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소비 및 공공투자 확대는 신정부 및 의회 구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이 선행과제임.
- 다만 수출 확대는 근본적으로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회복과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회복이 필요하며, 정정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태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은 수출 오더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태국의 쿠데타 발생이 한국경제에 미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양국간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주요 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재확인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태 양국간 경제교류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의 1.4%, 수입의 1.0%, 해외직접투자의 0.8%의 비중을 차지하며 태국의 정치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군부 쿠데타는 한국정부와 인접 국가가 수년간 추진해온 CEPA, 수자원개발, 교통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 군부 쿠데타 발생 당시 태국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ASEAN FTA 서명에 단독으로 불참한 전례가 있음.
- 군부 쿠데타로 인해 양국간 협력사업이 지연 혹은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 재확인 및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군부 쿠데타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로 인한 리스크는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은 최근 수년간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은 친기업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경영전략 수립에 최근 정정불안과 쿠데타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의 경우 본사업 추진까지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사전 기획단계에서 감안해야 함.
- 또한 입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주보상비 부담 등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할 필요도 있음. KIEP